

양호실 순례 ②



기업을 통하여 국가와 종업원과 지역사회에 보답한다

- 동원전자 양호실을 찾아서 -

8월의 뜨거운 햇살이 서울의 아스팔트 거리를 태울 때 기자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되어 동원전자 양호실을 찾아갔다.

1,600여명 동원전자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田溶淑양호선생님 30대 후반의 중후한 멋을 창조하려는 한국적 여인상이었다. 또한 하얀색의 가까운 기자의 땀으로 뒤범벅된 온몸을 시원하게 해준다.

— 연1,2회 정기적인 건강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요.—

『정기적인 건강검사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되지만 간염등 남에게 전염시키는 위험성을 사전에 막을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저희같이 집단체제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들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1,600명의 동원전자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田溶淑양호선생님의 얼굴표정은 다른것은 몰라도 직원들의 건강관리는 나의 책임이라는 어떠한 의무감을 기자는 엿볼수가 있었다.

— 동원전자 직원들에게 보건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교육시간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나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田溶淑양호선생님〉

“정기적인 건강검사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요, 특히, 저희같은 단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말입니다.”

일과후나, 여가때 보건교육 슬라이드나, 영화를 상영하고 있어요. 특히 저희 직원 대다수가 젊은층이기에性に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상담역할도 해주지요. 개인적인 고민도 상담하고 있어요.』

우리 田溶淑양호선생님은 동원전자의 어머니이십니다.

직원들의 건강과 개개인의 사생활까지도 상담해주고 계시니까요.

옆에 자리한 관리부의 梁계장이 살짝 귀뜸을 해준다.

그러나 피병을 부리거나 의지력이 약한 직원들에게는 호랑이 양호선생님으로도 통하고 있다고 말을 이어준다.

— 현재 健協에서 하는 간염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하게된 동기는? —

『간염은 현대인들에게는 공포병이라고도 부를수 있어요. 그러기에 간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복지후생의 일환으로 전직원들에게 간염검사와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회사에서 흘린 땀방울은 곧 가정의 화목한 웃음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 땀방울을 닦아주는 곳은 마땅히 회사가 되어야 하지요. 옆에 있는 관리부 梁계장이 기자에게 웃음을 지으면서 말을 이어준다.

이곳 동원전자의 경영이념을 기지는 언뜻 생각했다. “기업을 통하여 국가와 종업원과 지역사회개발에 보답한다” 라는 창립자인 조동식회장의 경영철학이 동원전자 전직원들의 노사관계에 중요한 매체로 변환것을 기자는 알수가 있었고, 이렇듯 기업의 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직원들의 복지후생에 역점을 두는 동원전자의 앞으로 발전은 창창할 것이라 기자는 생각한다.

—년 1, 2회 정기적인 기생충검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요. —



“직장에서 흘린
땀방울,
가정에선
화목한 웃음소리로 변
해요”

『기생충의 년 1·2회 정기 검사는 현재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생충 감염을 0%가 될때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선에서 직접 건강관리의 책임자로 있는 田溶淑양호선생님의 보건관념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보는 것 같아 기자는 호뭇함을 느낄수가 있었다.

—동원전자 양호실을 독자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면—

『저희 동원전자의 사훈에는 “인화단결, 근면성실로 품질향상”하자는 말이 있어요.그것은 마치 한가정의 사랑의 응급치료 구급낭과도 일치해요. 한가정을 꾸미는 모든 식구들이 합심하면 행복한가정을 가꿀수 있듯이 저희 양호실역시 몸이 아플때만 치료하는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도 치료를 하는것이니 그것을 자랑이라면 자랑이라고 할수 있지요.』

서너평 남직한 양호실이 한가정의 사

랑의 응급치료통이라. 그것도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는 응급치료통으로 비유하는 田溶淑 양호선생님의 겸손한 마음을 기자는 잊볼수 없었다.

—건강소식 독자들에게 동원전자를 소개를 해주시지요. —

『저희 동원전자는 한국의 Hi-Fi 역사를 창조해낸 곳이지요. 그리고 노사관계가 가장 밝은 곳이고요. 지난 1978년 11월에는 기술도입부문 대통령표창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즈음은 연간 5억달러 이상을 수출하기도 하고요, 가장 자랑할수 있는 것은, 사적인 의견을 공적으로 전환시켜 개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주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워요.』

동원전자의 깨끗한 회사내의 전경이 기자의 눈에 떠오른다. 1,600여명의 전직들의 밝고 깨끗한 마음에 동원전자의 앞날에 밝은 미래가 있는 것을 기자는 알수가 있었다. <오일민 기자>